

GLOBAL 5百人賞, 朴魯敬씨가 受賞 滅種防止法の 制定促求 등 自然保全관계 業績도 많아 “世界環境의날”에 韓國人으로서 첫 榮光



지난 6월5일 「세계환경의 날」을 기하여 유엔환경기구(UNEP)가 선정하는 「Global 500 roll of honour賞」(地球村榮譽의 5百人名簿)에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朴魯敬씨(言論人)가 선정되었다. 「Global 5百人賞」은 지난해부터 오는 1991년까지 5년동안 全世界에서 환경보호, 공해방지에 공적이 현저한 學界, 言論界, 운동실천가등 5百名을 선정, 오는 1992年 UNEP 創設20주년을 기해, 全地球의 次元的 環境보전 네트워크를 형성하려는 것으로, 지난해 90명, 금년도에 95명이 선정됐다. 한국정부는 지난 1월 사회과학, 자연과학, 언론, 환경교육분야 등에서 7명(個人6, 團體1)을 추천했는데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朴魯敬씨(61·서울恩平區大棗洞202-19)가 선정된 것.

씨는 1956년 大邱의 每日新聞 論說委員으로 言論界에 몸담은 후 釜山日報, 朝鮮日報, 京鄉新聞 등에서 30년동안 주로 社會문제담당 논설을 집필했었다. 씨가 본격적으로 환경·공해문제에 과고들기 시작한 것은 1965년 아시아각국의 언론계시찰때 일본의 환경 파괴와 공해로 인한 질병의 심각성을 보고 멀지 않아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公害禍를 겪게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 한다. 환경청추천서에 의하면 씨는 1968년 조선일보 재직시부터 환경보호 및 공해방지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警世的, 계몽적, 유도적인 450여편의 사실과 業績을 통해 국민의를 높이고 정부와 공해발생업체들을 편달해 왔다고 한다.

또한 그는 여러편의 세미나 주제논문을 발표하고 수많은 강연회를 통해 정계, 실업계, 교육계의 문제의식 提高에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정년퇴직

까지 30년간 언론계에 종사하면서 ▲경북도문화상(언론부문) ▲서울신문화상(언론부문) ▲국민훈장 동백장(환경보존부문)등을 수상했으며 은퇴후론 프리랜서로 집필활동을 계속하는 한편, 소비자보호원분쟁조정위원, 해외개발공사이사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그는 經濟優先政策으로 우리나라 基幹産業의 擴充時期였던 1969年~1975年 사이에 이미 155편의 公害問題에 관한 날카로운 社說과 業績을 발표했다. 그중 주요한 기사제목은 ▲公害문제에 눈을 뜨자 ▲公害없는 中進國의 꿈을 이룩하자 ▲농약은 “生物의 어머니”인 大地를 不妊化한다 ▲浪費經濟와의 訣別 ▲沿近海淸淨을 保全하자 ▲重金屬汚染米는 죽음의 쌀 등인데 發表年代別로 우리나라 환경문제의 眞實함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1976~1980年 사이에 그가 발표한 156편 속에는 ▲새 田園都市의 建設 ▲환경정책의 後退 ▲全國江流의 水質을 調査하라 ▲國土汚染의 深化 ▲大都市쓰레기問題 ▲自然은 生命의 源泉 ▲環境權의 提高 ▲擬似公害病을 糾明하라 ▲地方官署의 환경교육 등이 담겼다.

또한 1981~1986년엔 140여편을 발표했는데 ▲그린벨트의 規制완화에 反對한다 ▲「환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定하라 ▲自然에 대한 사랑과 畏敬 ▲時急한 환경教育의 體系化 ▲「맑은 물 保全」市民운동을 전국에 확대케 하라 ▲山林의 荒廢化는 外敵보다 무섭다 ▲觀光개발과 환경保全의 兩立 등으로 환경啓蒙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많다. [珠]